

제21회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1월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무역·투자·기술협력 등 산업협력의 발판을 마련
- 21년간 한국 1,030명, 일본 1,368명 합계 2,398명이 참가

- 1) 테마 : 미래지향의 한·일(큐슈) 협력
 - 한·일(큐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이 보유하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무역·투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를 촉진
- 2) 일시 : '14. 11.25(화)~11.28(금), 3박 4일
- 3) 장소 :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호텔 오쿠라 JR 하우스텐보스)
- 4) 참석자 : 양국 정부대표(韓 산업부, 日 큐슈경제산업국)·기업 등 총 107명
 - 한국측 : 산업부, 부산·광주시, 한일경제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산학연합회,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환경·에너지 관련기업 등 60명(본회의 60명, 상담45개사)
 - 일본측 : 큐슈경제산업국, 나가사키현, 후쿠오카·기타큐슈시, 큐슈경제연합회, 큐슈경제조사회, 큐슈대학,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 JETRO서울사무소, 큐슈일한경제교류회, 기업 관계자 등 47명(본회의 47명, 상담 24개사)

2. 주요 성과

- ☐ 큐슈지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큐슈경제연합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기전자·기계 등 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큐슈진출의 기반을 구축
 - 한국 45개사, 일본 24개사 총 120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383萬)
 - 한·일(큐슈)회의의 병행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상담회를 한·일(큐슈)회의 본사업의 하나로 테마에 따라 세트형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비즈니스 찬스의 기회를 마련
- ☐ 실질적인 한·일(큐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산업클러스터 계획홍보
 - * 코리아 트래블 신문(5만부)을 통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PR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통한 한일 경제관계의 원원방안 제시 및 기술과 비즈니스 융합의 산업간 경제협력 발전방안 제언

1) 한·일(큐슈) 기업 간 비즈니스 확대 (비즈니스 상담회)

	한국측	일본측	총 상담건수	상담금액	성약가능 추정금액
전업종	45개사	26개사	120건	\$1,383萬	\$461.6萬

- 한일경제협회와 큐슈경제연합회 공동으로 큐슈일한경제교류회 등의 협력을 얻어 민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전자·기계 등 **소산업분야의 한·일(큐슈)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

- 한국측 45개사, 일본측 24개사 기업이 매칭, 총 120건의 상담이 성사되었으며 **총 상담금액은 \$13,830,000, 이 중 성약가능 추정금액은 \$4,616,000으로 집계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처리시설 및 태양광, LED조명 등 그린에너지·환경분야의 상담이 약 \$1,200만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ANT21사와 NEOS사의 경우, 상담 중에 일본측 기업으로부터 각각 \$4,000과 \$2,000의 샘플오더를 받음**

- 한국측 37개사 중 향후 전적의뢰 예정 및 상호방문 예정인 기업은 15개사로, 참가기업 중 **약 40%의 기업이 효과적인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됨**
 - 전적의뢰 기업 : ANT21, LMAT, YB해운항공, 기원코퍼레이션, 네오스, 대건테크, 메카스, 미래엔지니어링, 솔라라이트, 유켄바이더월드
 - 향후 상호방문 예정 기업 : ANT21, 삼익테크, 미래엔지니어링, 코스텀, 쿨링시스템

- 상담회 설문조사 결과 67%의 참가자가 상담결과에 만족하였으며 상담회 준비 및 사전 어레인지와 관련해서도 각각 67%씩의 만족도를 보임

□ 기업별 주요 상담내용

No	한국측 기업명	일본측 기업명	상담내용	비고
1	ANT21	흡착기술공업	·수처리시스템의 폭기시스템에 대하여 상담 (사케 제조공장의 폐수처리시설과 양식장에 사용 예정) ·폭기시스템 샘플오더를 받음	
2	C&C솔루션	미쓰비시 나가사키기공	·태양광 물 순환장치에 대한 홍보 진행	
3	E&G Tech	원&원	·제품홍보 및 시장조사	
4	Gem Tech	아이루	·한국에서 베지트 추출기의 공동생산 및 합작을 원함	
5	LMAT & ThyssenKrupp	그린리버	·태양광 지지대 및 모듈프레임용 AI 납품협의 ·AI 생산은 LMAT에서, 가공은 ThyssenKrupp에서 진행예정 ·추후 spot견적 후 진행	

No	한국측 기업명	일본측 기업명	상당내용	비고
6	Twocap	고덴샤	·이중볼트캡에 대한 소개 ·이너트폴림방지스프레이 관련 샘플을 제공함	
7	Web Logis System	이사하야전자	·BPMS 제품소개 및 수출협력 관련 상담	
8	YB해운항공	아시아항운	·한국으로 목재를 수출하기 위한 벌크선이 필요하다고 함 ·용선 관련 내용 확인하여 통보 예정으로, 검토 후 긍정적 이면 바로 거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9	기원코포레이션	미쓰비시 나가사키기공	·프랜치 대형단조품 관련 추후 견적요청을 받기로 함 ·업무연관성이 많아 추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10	네오스	제일시설공업	·EV용 연속식 수직반송기 관련 제조위탁을 받음 ·샘플식 제조를 진행하여 \$2,000 상당의 샘플을 납품예정	
11	대건테크	미쓰비시 나가사키기공	·제어판과 관련하여 11/27(목) 나가사키공장을 직접 방문 하여 제어부문 그룹장과 미팅을 진행할 예정임 ·볼륨은 상당하나 양산이라기 보다는 오더메이드 형식임	
12	대성하이텍	미쓰비시 나가사키기공	·필름권출기 및 호닝머신 관련 상담 진행 ·회사복귀 후 관련내용 담당자에게 토스하여 문의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함	
13	라이트전자	미야모토전기	·LED백라이트 제조조립 공장에 PLC제어기 설치 관련 상담 ·식물재배기 및 유틸리티 공급 제어기 설치현황 협의 등	
14	삼익테크	제일시설공업	·양사 제품군의 전체적인 공동이익을 위한 상담으로, 공동 생산 및 개발, 합자투자 등에 대한 협의 ·15년도 초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정립	
15	성성산업기계	미야모토전기	·일본에서 사용될 전기제어반 기계 판매를 희망 ·제어반의 설계 및 제작 관련 한국내 외주처리를 검토예정	
16	솔라라이트	그린리버	·태양광을 활용한 농업용수 개발 등의 그린에너지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망	
17	씨케이아이	함동산업	·도로상의 반사필름을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예정	
18	영남상사	HTB기술센터	·도로판매에 대한 의견타진에 대하여 귀국 후 조사하여 서로 연락하기로 함	
19	오스코나	서일본공업	·이동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대피시설(해수가 침수되어도 바다로 피난 가능) 관련 상담	
20	유승산업	메이와제작소	·오토바이 기어 가공 관련 상담 진행	
21	유캔바이더월드	와이즈업	·유캔바이더월드 판매상품(한류 관련) 관련 판매대행 의사 밝혀옴 ·유캔바이더월드측 모델의 기술적 협력 가능성이 높음	
22	쿨링시스템	하쿠요자동차	·판쿨러치 관련 상담하였으며 12월에 방문 예정	
23	프로텍	미야모토전기	제어 및 자동화시스템 관련 외주화 논의	

□ 기업 앙케이트 내용

1) 상담결과 평가

- 대단히 만족	7명 (21%)
- 만족	15명 (46%)
- 보통	9명 (27%)
- 만족하지 않음	2명 (6%)

2) 비즈니스 연결형태

- 상담회에서 얻은 연고의 유지 및 발전	26명 (38%)
- 일본시장 조사	19명 (27%)
- 방일하여 상품의 판매촉진	10명 (14%)
- 일본의 바이어를 공장에 초대	8명 (12%)
- 일본에서의 전시회 등에 참가	6명 (9%)

3) 상담회 준비

- 매우 좋음	13명 (39%)
- 좋음	9명 (27%)
- 보통	11명 (33%)
- 나쁨	0명 (0%)

4) 상담회 통역

- 매우 좋음	9명 (28%)
- 좋음	13명 (39%)
- 보통	10명 (30%)
- 나쁨	1명 (3%)

5) 상담회 사전 어레인지

- 매우 좋음	13명 (39%)
- 좋음	9명 (28%)
- 보통	11명 (33%)
- 나쁨	0명 (0%)

6) 상담회 재참가 여부

- 매우 좋음	33명 (100%)
- 좋음	0명 (0%)
- 보통	0명 (0%)
- 나쁨	0명 (0%)

7) 기타 의견

- 상담시간이 부족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보파악이 불가능하였음. 상담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해 주기를 바람
- 일본측 업체 수가 적음
- 연 1회 상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수 회 개최해야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일본측 업체가 규슈지방에 한정되어 있어 관련성이 없는 기업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임
- 일본측 업체는 정보공개를 꺼리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듯한 인상이었음
- 준비된 통역의 실력이 부족해 보임

2)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발표자·제언기관	주요 발표내용·제언(요약)
1. 기초강연 ○ 한일경제협회	‘한일 경제관계의 윈윈 전략’ -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 필요성 제시 - ①NO비자그룹의 확대,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②지역 간 교류 확대 및 SOC의 정비, ③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의 확보, ④에너지확보 공동대응, ⑤농업부문 상호투자확대, ⑥환경 및 외환 문제의 대응, ⑦공용한자 사용 등 공통의 문화적 유산을 활용한 공감대 확산
○ 큐슈경제연합회	‘큐슈·오키나와지방 성장산업 전략’ - 일본산업부흥 계획에 의해 큐슈·오키나와지역 산업 경쟁력협의회 설치하여 큐슈·오키나와의 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전략을 책정, 팔로업을 추진 - 지역 성장 전략 4개 분야(청정분야, 의료·헬스케어·화장품분야, 농림수산업·식품분야, 관광분야)의 연대를 통해 큐슈의 지속적 발전을 지향
2. 경제협력 발전방안 ○ 동의대학교	‘한·일(큐슈) 경제협력 발전방안과 전개방향’ -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충과 해외시장 공동진출·확대 등 기술과 비즈니스를 융합하는 교류 협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환경, 수송기계, 일반기계, 관광 분야 -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강화와 해외시장 판로 확보, 지속적인 성장패러다임확보 등을 위한 글로벌 혁신 인재를 위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 * 글로벌 혁신인재 DB 구축, 운영
① 큐슈일한경제교류회 ② 큐슈경제조사협회	‘대표질문·협력·제휴’ ① 동아마이스터교, 영진대학 등 우수인재를 채용중임. 한일기업의 기반인재 육성 교육 시스템을 한일(큐슈) 회의에서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줄 것을 제언 ② 지속가능한 교류모델의 제안. 기업 그룹간 교류에 의한 매칭 가능성 향상
3. 지역간 교류촉진 ○ 히라도시	‘교류인구 확대를 위한 히라도시 시책 전개와 과제’ - 지역발전을 위한 도전으로 관광객이 교류를 계기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히라도시의 시책 구조 설명 - 인구 감소시대에 각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전개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창의적인 제안을 유연하게 수용하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

발표자·제언기관	주요 발표내용·제언(요약)
① 혁신전문기업실용학회	‘대표질문·협력·제휴’ ① 네트워크, 파트너십 방식의 전략추구, 환황해 지자체간 관광 상호연계전략 (한국지방도시와의 연계로 인적교류 확대, 교황 방문 추진 제언, 아시아공동체 분위기 조성) ② 교류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비자 확대 정책 제언 (문경시의 1·2·3차 산업 연계 사례 소개, 히라도시의 기독교 자산을 활용한 국제교류)
② 신아시아산학관협력기구	

3. 종합평가 및 향후 후속조치 사항

- ☐ 본회의와 더불어 일본 큐슈지역 업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남해안지역 기업의 일본 큐슈지역으로의 시장개척 계기 마련
- ☐ 하나의 국가에 버금가는 경제규모를 지닌 큐슈지역(GDP : 5,255억달러 2010년 기준, 세계 21위의 스웨덴 경제와 비슷한 규모)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서 비즈니스 상담회의 정례화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한일 무역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한·큐슈 무역은 1조6,478억엔으로 한·일 무역액(9조엔)의 18.3%를 차지
 - * 한국의 對큐슈 수출(4,734억엔)은 대일수출(3조4,931억엔)의 13.6%를 차지하며, 對큐슈 수입(1조1,744억엔)은 대일수입(5조5,118억엔)의 21.3%를 차지
- ☐ 1993년 첫 회의 이후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의 사업제안·합의형식의 회의에서 경제산업시책 공유·지역간 교류촉진·비즈니스 교류 성과창출의 회의로 개편한 첫 회의로, 양측이 1개씩 핵심된 비즈니스 테마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교류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
- ☐ 2015년 제22회 차기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언된 산업별 교류 방향에 의거하여 향후의 주요 논의 테마를 설정
 - 신재생에너지, 환경, 수송기계, 일반기계, 관광, 의료·요양(개호) 분야 등